

전남도, 저수온 피해 막는다…양식장 종합대책 가동

고수온에 약해진 양식어류…울겨울 한파 대비 선제적 방어
월동 해역 확대·장비 지원·피해 복구…현장 중심 대응 강화

전남도가 울겨울 한파로 인한 양식생물 저수온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여름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고수온 특보로 양식 어류의 면역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다가오는 겨울 급격한 수온 하강이 예고됨에 따라 선제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5~2026년 저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립해양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의 전망을 종합하면, 울겨울은 평년 대비 높은 수온이 예상되나 북극 해빙 면적 감소의 여파로 간헐적인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 상황에 따라 수온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일시적인 한파 발생 시 얕은 수심의 연안과 내만 해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된다.

저수온 특보는 12월 중·하순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 주의보, 2월 초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보 유지 기간은 약 60~65일로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전남 양식장에서는 최근 저수온 피해로 재산 피

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 발생한 저수온으로 여수와 고흥 등 2개 시군 89 어가에서 8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특히 올 여름 고수온 특보가 77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양식 어류들의 생리기능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저수온이 닥칠 경우 대규모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신속한 재난 대응 ▲피해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중장기 대응 연구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전남도는 양식 어류의 월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는 여수 연안 양식장에서 월동 가능 구역인 거문도까지 이동 거리가 약 80km에 달해 어민들이 이동 비용 부담과 이동 중 폐사 위험을 이유로 기피해 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국립공원 내 유유 면허 등을 활용해 이동 거리가 짧은 대체 월동 해역을 시범 운영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 월동 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도 정비했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해 피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가가 없도록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남바다알리미 앱 등을 통해 해역별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양식장 관



전남도청 관계자들이 전남의 한 어가를 찾아 저수온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왼쪽).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

〈전남도 제공〉

리요령을 지도하고, 피해 우려가 큰 경우 긴급 방류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피해 복구 지원 사각지대도 없앤다. 그동안 어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던 재난 지원금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업 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양식 생물의 폐사체 처리 시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갖추고, 실거래가 수준의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찰督办, 감성돔 등 저수온에 취약한 주요 품종의 내성 유전자를 발굴해

추위에 강한 품종을 개량하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기후 예보 서비스를 개발해 어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년 3월(특보 해제 시)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고수온 여파로 양식 어류가 쇠약해져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조기 출하와 사육 밀도 조절, 방한 장비 점검 등 '겨울철 양식장 관리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개발공사, 5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공정 투명 채용 운영 체계 강화
외부 전문가 면접단 상시 운영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5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

1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은 최근 공사를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심사는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채용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면접 전형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 평가오류를 방지하는 절차와 채용감증위원회를 포함한 다중적 통제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심사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내부 채용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전남개발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켜 온 노력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장충모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채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린 채용, 공감 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 저리 융자

도, 친환경 농가 등 연 1% 지원

전남도가 16일 "환경친화적 축산 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6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비 200억 원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법)인 8억 ~30억 원 축산물 유통업체 30억 원이며, 운영자금은 농업(법)인 4억 원, 축산물 유통업체 6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나 HACCP 인증 등 관련 기관의 지정이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와 축산물 유통업체 등이다. 신규 축산농가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관련 인증이나 지정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는 2026년 1월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스마트 축산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전남도, 26일까지

전남도가 오는 26일까지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약취·분뇨 관리, 탄소 저감,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보통신 기술(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선정된 ICT 기업이 주도해 각 농장에 적합한 스마트 축산장비를 설치·보급하고,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연계·분석할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가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농장 운영을 하도록 돋는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25개 업체가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비 세트(패키지)를 구성해 축산농가에 제공함으로써, ICT 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농가의 경영 효율성과 사양관리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